마음의 할례와 양피 모둠쟁반

(신10:12~22)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할례와 양피 모둠쟁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의 할례와 양피 모둠쟁반'
'할례'는 이스라엘의 경우 태어난 지 팔일 된 아기의 몸에서 양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로 마음에서 베어내야 하는 양피가 있는데, 이 양피들을 날마다 모아두는 모둠쟁반 하나는 있어야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둠쟁반'이라고 하면 모둠 회 쟁반, 모둠 전 쟁반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누구나 베어낸 양피 모둠쟁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뜻의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의 외할머니 조상들 중에 임진왜란 때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의 사또를 지내셨는데 왜적이 쳐들어와서 곳간 열쇠를 내놓으라고 강압합니다. 열쇠지기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손에 쥐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데도 전혀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도(刀)에 열쇠를 쥔 오른 팔이 잘라져나갔고 왼손으로 열쇠를 다시 쥡니다. 이번에는 일본도에 왼쪽 팔이 잘라져나갑니다. 차례로 두 팔이 잘라지니 나중에는 땅에 떨어진 열쇠를 입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목 베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왜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그 내용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충정공으로 봉해지셨는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충정공'은 충절을 기릴 만한 사람에게 왕이 내리는 시호입니다. 곳간 열쇠가 몸의 지체와 붙어버린 인상을 받습니다. 곳간 열쇠를 손에

쥐면 손의 일부가 되고, 입에 물면 머리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곳간 열쇠를 잃는 것은 자기 몸의 지체를 잃는 것이고, 자기 몸 전체를 잃는 것과 같이 여겨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곳간 열쇠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은 정말 애국충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가져와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곳간 열쇠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의 외할머니 존함이 김氏이었고 김 충정공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곳간의 열쇠이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만족과 기쁨의 곳간 열쇠입니다. 이 열쇠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만족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곳간 열쇠를 잃어버리면 나는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고, 이 곳간 열쇠가 없다는 것은 내 삶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만족과 기쁨 곳간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를 꼬치꼬치 따져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은 이유를 찾고, 걱정과 불안의 이유를 따져보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마음의 열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 재물, 승진, 취직, 결혼, 가족, 자녀, 배우자, 사람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쁨과 만족 곳간의 열쇠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지독하게도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전제로 나온 말이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선민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촉구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행7:51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롬2: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합니다. 즉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곳간의 열쇠로 여기는 것들이 마음에서 살이 되어버린 상태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다보면 내 마음의 살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으로서는 마음 자신의 살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할례’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베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한 때 회자했었고 여전히 기회만 되면 우리 입에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 이것이 될 수 있었다면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할례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므로 ‘내려놓음’이라는 행위에 대한 이론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마음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떨어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가 마음으로 열렬히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필수적인 사건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살이 되어버릴 정도로 세상에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기쁨과 만족의 열쇠를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잘라낼 수 있을 뿐인데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마음으로 진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잘 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아기의 몸에서 양피(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재산, 건강, 성공, 형통, 승진, 배우자, 인생성공, 부흥, 명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예배당 등이 마음에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베어낼 양피입니다.
욥에게 재산과 건강과 자녀와 배우자와 절친한 친구들과 사회적인 명성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삶을 보람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베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찢겨져나갑니다. 마음의 살이 된 것들이 찢겨나가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견지하고 나갈 때에 마지막에는 욥42: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합니다.
위에 열거한 세상의 좋아하던 것들이 양피가 되어서 욥의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찢어내시니 아픔을 느끼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마음의 할례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만족의 곳간 열쇠를 마음이 쥐고 있고, 그것들이 마음의 살이 되어서 마음의 눈을 덮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들을 잘라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골2: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은 몸과 붙어있기 때문에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세상 것들이 또한 마음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자녀, 재산, 승진, 결혼이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몸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몸 자체를 마음에서 베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뒤에는 마음이 육체를 아예 베어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게 되면 날마다 양피가 모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너무 귀한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마음이 붙잡고 있는 그 재산을 잘라버리고, 자식을 붙잡고 있으면 또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식을 잘라냅니다. 재산, 자식, 건강, 아내, 친구들, 사람관계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잘라내져야 하는 양피들이고, 내 마음에 붙으려고 하고 내 마음이 아까워하고 좋아해서 살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잘라내야 하므로 양피 모둠쟁반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관계에서는 내 자식도 하나님이 세상에 있게 하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자식은 베어낸 양피입니다. 내 재물은 귀하고 하나님의 뜻에 임해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양피 모둠쟁반에 올라가야 할 베어낸 양피 조각들입니다. 내 마음이 좋아하려는 것들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양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 재물, 승진, 예배당 건축, 부흥 등도 다 마음에서 베어내야 될 양피 조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실제로 베어내야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 담이 이어져 나올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보면 목이 곧음과 마음의 할례가 꼭 붙어 나옵니다. ‘목이 곧음’은 선민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선민 아닌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붙잡고 있어서 재산이 살이 되었으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식이 좋아서 자식을 붙잡고 있으면 자식이 덮여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민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으로도 봐야하니 마음의 할례가 촉구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이 살이 될 정도로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 곳간의 열쇠가 된다고 믿어지는 것들을 베어내질 못하고 베어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지금 좋아하는 상태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자기기만이죠.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어내야 하는데 죽어도 못 베어내겠다는 것이 목이 곧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목이 곧음이라고 하시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목이 곧음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쥐고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쥐고 있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 여호와라는 이름의 금송아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주어지지 않고 세상 것을 좋아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한 입으로 여호와를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될 수밖에 없

습니다.
선민 가운데 목이 곧은 자들이 하는 일이 마음의 할례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버립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의 인격성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취하려고 했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내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하고 부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게 사업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로 그 사업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 사업을 김 충정공이 곳간 열쇠를 쥐고 있던 것처럼 쥐고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내막이 바로 14~1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무한한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무한하고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이 땅위의 모든 만물(everything)은 예외 없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의 털 하나, 내 몸의 손톱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라고 하십니다. 세상 만물이 여호와의 것인데 ‘너희를 택했다’고 하시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이에 한 문장을 삽입하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왜 너희 마음에 집어넣느냐는 것이고, 너희 마음에 집어넣고 아끼고 사랑하다보니 너희의 마음에 살이 되지 않았느냐는 얘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아끼고 사랑해서 마음의 살이 된 채로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택하셨다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가 선민의 표징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신약 성경에 오면 의미가 없어지지만 마음의 할례는 신약 성경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선민의 표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에서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훔쳐냈다’는 것인데 너희도 똑같이 유전 죄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것을 좋아하는 바람에 그것들이 마음의 살이 되었는데, 선민으로 선택받았으므로 이제는 마음의 살이 되어버린 세상 것들을 다 잘라버리라고 하십니다.
‘잘라버리라’고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도 그것을 못 잘라낸다면 ‘목이 곧은 자’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자는 목을 꺾어버릴 것이고 그것이 바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신 하나님의 그럴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

심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고 목이 곧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식, 재물,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것을 훔쳐내서 김 충정공이 곳간의 열쇠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적이 김 충정공의 팔을 잘라내듯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이런 저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재산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들이 잘 된다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조차 없습니다. 무엇이 할례 때 잘라져야 할 양피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티켓 보장 받고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맞는 얘깁니다. 그러면 내 공로가 없으니 내가 해야 될 일도 없어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것이 저주에서 풀려난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하고 박해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게 저주에서 풀려난 증거면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려던 적들의 목이 날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저주가 다 풀렸다면 왜 쫓겨 다니고 박해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사기꾼들이고 전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생각이 없는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갈6: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에 살아서 그것들을 좋아하려고 할 때마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양피 모둠쟁반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에서 양피를 베어서 버릴 쓰레기통을 달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벗겨낸 양피들이 자식이고 건강이고 재산이고 몸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이 있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살이 될 정도로 좋아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를 섬기라’는 것은 ‘재물을 섬긴다.’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종업원이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기뻐하고 재물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여호와를 섬김의 최고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행복을 위한 명령’에서 행복을 위한 명령이 복음입니다. 이 행복을 위한 명령이 구약이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모든 것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이므로, 행복을 위한 명령은 단 하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 하나에 구약의 모든 명령과 규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마음이 세상 것을 좋아해서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할례를 행하면서 양피 모둠쟁반에 다 담습니다. 언제나 이 모둠쟁반을 들고 다니는 것은 버리면 되는데 버리면 잊어버리므로 오늘 하루 양피 모둠쟁반에 얼마나 쌓았는지 확인하려고 들고 다닙니다. 반드시 하루 동안에 수북이 쌓아야 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는 것은 ‘양피 모둠쟁반에 양피가 수북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양피 모둠쟁반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쌓이지도 않는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는 죄성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마음에 달라붙게 돼 있고 세상 것을 쥐게 돼 있습니다. 내려놓아요? 못 내려놓아요. 잘라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므로 잘라져 나가야 되고 할례가 행해져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매순간 내 마음의 죄성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을 세상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의 양피 모둠쟁반에 날마다 이 양피가 수북이 쌓이는 복된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목이 곧음의 저주로부터 풀려나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 양피 모둠쟁반 위에 매일 같이 양피가 수북이 쌓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